

즉시 출시용
2022년 2월 28일

연락:

LA 법률 보조 재단, Sara Williams, sjwilliams@lafla.org
아시아 아메리칸 정의 진흥협회, Lande Watson, landew@advancingjustice-alc.org
캘리포니아 지방 법률 상담소, Marisa Lundin, 토착민 프로그램 법무부장,
mlundin@crla.org

옹호자들이 **CA** 고용 개발부와 언어 접근성 확대를 위한 합의에 도달하다

2024년까지 구현된 언어 접근성 개선은 **EDD**가 캘리포니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커뮤니티의 방대한 언어 능력을 수용하도록 보장한다.

새크라멘토 —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언어 권리 옹호자들의 승리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캘리포니아 고용개발부(EDD) 실업보험(UI)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전역의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법률 보조 재단 (LAFLA), 아시아 법률 회의 (ALC),
캘리포니아지방 법률 상담(CRLA), 노동자권익센터(CWR) 및 직장에서의 법률
지원(LAAW)이 EDD와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로 기관의 UI 혜택, 서비스 및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한다.

이 합의는 LAFLA가 국가 출신, 민족 식별, 언어적 특성을 포괄하는 연방 및 주 정부의
차별금지 의무에 대한 체계적인 언어 접근 위반을 주장하며 처음 공정 고용주택부
(DFEH)에 제기한 [항의에서](#) 비롯되었다. 파트너 법률 단체인 ALC, CRLA, CFR, LAAW
등이 고소장에 동참했고 DFEH가 이를 중재했다. 합의의 일환으로 새크라멘토
상급법원에 양측의 합의가 제출되었다. 차별 철폐 조치를 위한 중국인들 (Chinese for
Affirmative Action)은 고소장에 참여했다.

LAFLA 언어정의 특별자문위원 조앤 이 Joann Lee는 "EDD는 부서 내의 절차를 모든
캘리포니아 노동자들을 위해 언어와 상관없이 더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EDD가 캘리포니아 주의 다양한
문화와 공동체의 요구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한다. EDD만이 아니라 많은 주 및 지방
기관들이 언어 접근 관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주 전체로서 더 잘 할
수 있고 더 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언어학적으로 가장 다양한 주 중 하나이다. 주민의 거의 절반이
집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700만 명의 사람들이 주로 200개 이상의

영어외 언어 중 하나를 사용한다. 스페인어가 약 64%로 가장 흔하지만, 영어 실력이 제한된 약 240만 명의 주민들이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청구인들은 가족을 먹여살리고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꼭 필요한 UI 혜택을 청구하는데 다양한 장벽과 직면을 해왔다 - 한때, 소수의 청구인들만 직원과 연결되어 대화할 수 있었다.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들은 언어 서비스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EDD와 연결이 되어서도 소통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약탈적인 제3자 브로커나 공증인 서비스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 클레임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혜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지사의 [2020년 9월 EDD 타격팀 보고서](#)는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개인은 지원을 받는 데 있어 넘을 수 없는 장벽에 직면한다"고 밝혔다.

컨 카운티의 주민이자 CRLA의 고객인 그레고리오 산체스는 다음과 같은 장벽 중 일부를 설명했다. "저는 믹스테코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EDD에서 UI를 여는 데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혜택 청구하고 싶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 사람은 제가 그에게 갈 때마다 저에게 돈을 요구 합니다."

"언어 접근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만 요구되는 것을 넘어, 언어 접근은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다"고 CRLA 토착민 프로그램 법무부장인 Marisa Lundin은 말했다. "앞으로 산체스 님 처럼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영리 중개업자의 비용을 부담하며 클레임이 정확하게 성공적으로 제출될 어떠한 보장도 없이 민감한 금융 및 신원 문서를 공유 할 필요가 없어지고, EDD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합의의 주요한 결과로 우리가 희망하는 것입니다 ."

"EDD의 언어 서비스의 부족함이 많은 한정된 영어권 사람들에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혜택에 접근하는 데 있어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어왔다. 청구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실시간 통역 지원을 제공 하겠다는 EDD의 약속은 커뮤니티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시아, 중동 및 다른 언어로 된 전화선 및 통역 자원을 확대하면, 팬데믹 이전에 그리고 도중에 가족들을 좌절시키고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던 장벽이 줄어들 것입니다,"라고 아시아 법률 회의 변호사 위니 가오 Winnie Kao는 말했다.

LAAW에서 일과 가정 프로그램 담당인 변호사 캐서린 우치에트는 "UI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훌륭한 진전" 이라며 "우리의 다양한 인력이 전적으로 지급하는 EDD의 유급 가족 휴가와 국가 장애 보험 프로그램에도 병행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우리 커뮤니티 멤버들은 이러한 혜택에 의미있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커뮤니티 회원들과 지지자들은 작년에 EDD의 다국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년간 2,100만 달러를](#) 포함하여 UI 프로그램 내의 언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상 변화를 성공적으로 진전시켰다. 법안은 또한 EDD가 2022년 7월 1일까지 다국어 유급가족휴가와 국가장애보험서비스 등을 예산 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최근의 입법 조치를 강화해 주는 합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필요한 자격을 갖춘 통역사 또는 다국어 직원을 통해 어떤 언어와 수어로이든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없을 경우, **EDD**는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영업일 5일 이내에 요청된 통역사와 함께 청구인에게 다시 연락을 해야 한다.

- 2022년 말까지 비영어 언어 **UI** 전화선을 확장해, 캘리포니아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위 7개 비영어권 언어를 포함하도록 한다. 전화선은 현재 스페인어, 만다린어, 광둥어, 베트남어로 제공되고 있다. 이 합의에 의하면 한국어, 타갈로그어, 아르메니아어 전화선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 2022년 말까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5개** 비영어 언어로 청구인을 위한 모든 중요한 **UI** 문서를 — 기계 번역이 아닌 자격을 갖춘 번역가를 사용하여 — 번역 해야된다. 위에 말한 언어들을 포함해서 아랍어, 파르시어, 편자브어, 러시아어, 일본어, 힌디어, 크메르어, 태국어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다.
- 2024년까지 다국어 액세스 포털 및 **UI** 온라인의 언어 접근성을 키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7개 비영어 언어로 포털과 **UI** 온라인을 접근 할 수 있게 개선한다.

노동자권익센터 전무이사 다니엘라 어반은 "이번 합의에서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이 어떻게 언어지원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언어권리 지지자들과 정기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 정착지의 변화가 캘리포니아 가족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EDD와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모든 조치를 포함한 전문을 읽어 주십시오.](#)

###

[LA 법률 보조 재단에 대해서](#)

LA 법률 보조 재단(LAFLA)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게 평등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률 사무소입니다. LAFLA는 직접 대표, 시스템 변화,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는 5개의 사무실이 있으며, 지역 법원에는 4개의 셀프 헬프 법률 지원 센터와 폭력 생존자들을 돕기 위한 3개의 가정 폭력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지방 법률 상담소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지방 법률 상담소(CRLA)는 캘리포니아 지방 카운티의 수만은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열심히 일한 보답으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지를 찾아 머물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외의 일을 돕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캘리포니아주 지방 인민을 존엄성과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고, 그리고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온라인 사이트 www.crla.org 를 방문해 보십시오.

[노동자권익센터에 대해서](#)

노동자권익센터는 새크라멘토에서 활동하는비영리 법률 및 옹호 단체다. 이 단체의 임무는 노동자를 존엄성과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에게 법적 대리인을 제공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발의를 옹호하며, 광역 새크라멘토 지역에서 노동자 교육, 적극성 및 리더십을 촉진한다.

[아시아인 아메리칸 정의 진흥협회에 대해서](#)

아시아인 아메리칸 정의 진흥협회(**ALC**)는1972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저소득 이민 아시아인 아메리칸과 태평양계 아메리칸 커뮤니티의필요에 초점을 맞춘 법률 및 인권 단체로 설립되었다. **ALC**는 미국 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인종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 모든 분야의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Legal Aid at Work에 대해서](#)

Legal Aid at Work는 무료 법률 클리닉과 전화 상담 서비스, 홍보 및 교육, 직접적인 서비스 및 소송, 그리고 정책 옹호를 통해 저소득 노동가족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률 서비스 단체이다.